

제 3 회 제주평화포럼

제주 동북아공동체 선언문

2005 년 6 월 11 일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북아 공동체 구축’을 주제로 2005 년 6 월 9 일부터 11 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된 제 3 회 제주평화포럼이 성공리에 마무리되었다. 제 3 회 제주평화포럼은 포럼 참석자들의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선언하는 바이다.

동북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구축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은 교류와 협력에 기초한 지역공동체 구축이다. 또한, 동북아공동체 구축은 진정한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을 위한 핵심적이고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도 하다.

활발해지고 있는 외교안보 협력, 심화되고 있는 경제적 상호의존, 그리고 확대되고 있는 사회문화 교류는 동북아 지역의 통합과 공동체 구축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동북아는 이 같은 기회 못지않게 안보, 경제, 사회문화적 도전과 제약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동북아의 핵확산 위험성, 영토 문제에서 유래되고 있는 새로운 긴장, 그리고 이 지역에 내재하고 있는 구조적 불안정성은 안보분야에 있어서 우리의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제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적 구도와 민족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한 역내 국가 간 마찰은 이 지역의 교류와 협력의 미래에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도전과 제약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극대화하여 지역 공동체에 필수적인 교류와 협력을 제도화시키는 것은 이 지역 국가들의 역사적 사명이라 하겠다.

현재의 안보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자간 안보 대화 및 협력을 촉진하고 구체화하여 역내 국가간 신뢰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6 자 회담을 통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타결은 동북아 지역에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를 구체화시켜 나가기 위한 귀중한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아울러 역내 경제공동체 형성을 실현시키기 위해 무역, 금융, 에너지, 물류 등 제반 경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과 상호의존을 가속화하고 제도화 하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동북아공동체 형성의 필요성에 대해 비정부적 차원에서 이미 상당한 수준의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진 만큼, 역내 각국 정부들이 이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반영하고 실현시키기 위해 즉각 구체적 행동에 나설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동아시아 정상회담을 통한 동아시아공동체 형성 움직임이 이미 가시화된 현 시점에서,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각국 정부간의 구체적 논의와 실질적인 협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명제가 되고 있다.

한편, 동북아공동체 구축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편협한 민족주의를 초월한 공동의 지역 정체성을 지닌 역내 시민들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이 동북아공동체 구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수라 하겠다. 이 같은 이유에서 동북아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역내 비정부간 인적 연계망이 과거 어느 때 보다 효과적으로 구축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세계평화의 섬’이자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이점을 백분 살려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선구적 역할을 해 나가고자 하는 제주도와 도민들의 노력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하고 지지한다. 특히 세계적 규모의 ‘제주평화연구원’을 설립하여 국제적인 평화연구와 교류활동의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하는 제주도민들의 야심찬 계획은 역내 평화네트워크를 정착시키고 동북아공동체 실현을 앞당기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